

사진
문화

PHOTOGRAPHY & CULTURE

vol.1

한국사진문화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138-724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9층
T 02-418-1315 F 02-418-1316

한국사진문화연구소

Contents

창간사

1

자료로 본 한국사진사

4

한국사진사 연표: 해방공간 편

10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참고자료: 김한용 편

12

연구소 소식

13

발행 한국사진사연구소
주소 138-72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9층
전화 02-418-1315
팩스 02-418-1316
웹사이트 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
발행인 송영숙
편집인 최봉림
편집위원 이경민, 황사라
진행 이등은
디자인 한스그래픽
출력·인쇄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0. 2

Copyright © 2010

이 책에 실린 모든 글, 사진, 그림 등의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저자에게 있으며, 연구소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의 자료들의 수집·정리·보존 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사진+문화』는 한국사진문화연구소에서 연 2회 발행하는 기관지로 한국사진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 관련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자료의 소실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사진사 정립을 위한 작은 발걸음

소설가 이병주(1921-1992)는 해방공간에서 4.19 혁명에 이르는 격변기를 다룬 대하소설, 『산하』에서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라는 부제를 붙인 바 있다. 과거의 사실은 시대를 관통하는 지배 담론 매체의 연구, 토론, 출판이라는 ‘햇빛’을 받아 ‘역사’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 여겨지는 담론으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과거는 ‘달빛’이라는 비주류 담론의 웅성거림, 속닥거림, 객담 속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신빙성 없는 ‘신화’가 된다. 그러나 ‘역사’가 되었던 ‘신화’가 되었던 과거는 모두 ‘햇빛에 바래고’ ‘달빛에 물드는’ 까닭에 사실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역사적 사실은 햇빛에 바랬고, 신화로 변모한 과거는 달빛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햇빛에 바랜 역사가 달빛에 물든 신화보다 더 진실한 것인지, 다시 말해 과거의 사실 그 자체에 더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마르크시즘, 정신분석, 후기 구조주의 방법론 등이 역사학 연구에 도입되면서 회자되었다.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을 믿었던 실증주의 사관이 후퇴함에 따라, 과거의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발견, 발굴’ 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자 혹은 발굴자의 관점, 그 발견과 발굴을 기술하는 역사가의 이데올로기, 역사를 편찬하고 배포하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된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다. 과거는 해석되고 조직된다. 과거의 사실은 ‘역사’라는 담론체계에 관여하는 개인과 집단의 주의, 주장에 따라 선별되고, 은폐되고, 강조되고, 생략된다. 한 마디로 말해, 지배 담론이라는 ‘햇빛’을 받아 과거의 사실은 퇴색된다. 마치 ‘신화’를 말하는 자가 자신의 관점, 정보, 식견에 따라 과거의 어떤 사실은 크게 떠벌리고, 어떤 사실은 슬쩍 얼버무리고, 한 개인에 대한 존경심을 과장하고, 또 다른 개인에 대한 평가에 자신의 서운함을 개입시키는 것과 정도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그 전언의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해서 오늘날에는 ‘햇빛에 바랜 역사’만이, 즉 전통적 역사를 구성하는 지배 담론만이, 혹은 전통 역사학이 애호하는 역사적 문헌만이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달빛에 물든 신화’도, 심지어는 달빛조차 쬐지 못한 일화도 역사 연구의 자료이자 문헌이 된다. ‘햇빛에 바랜 역사’와 ‘달빛에 물든 신화’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이병주의 픽션, 『산하』도 오늘날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의 귀중한 자료체(資料體, corpus)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격변기를 산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의 삶이 ‘햇빛에 바래고, 달빛에 물든 채’ 어느 문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햇빛에 바랜 역사, 달빛에 물든 신화 혹은 문학적 상상력이 투사된 소설 모두가 한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 삶을 이해하고 재

구성하게 해주는 역사의 자료체이다.

130년이 채 되지 않는 한국 사진역사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햇빛에 바랜 역사’는 물론이고 ‘달빛에 물든 신화’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진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체인 사진도 열악했던 경제적 상황 때문에 풍요로운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사진들도 비운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리멸렬하게 사라졌다. 일제 강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진, 동족상잔의 비극을 건드린 사진, 독재의 야만을 내보이는 사진은 역사의 눈을 피해 갔고, 많은 일상의 기념사진들도 생활고와 급변하는 가치관의 변모 속에서 찢어지고 버림받았다. 공모전, 단체전 혹은 개인전을 위해 생산됐던 예술사진도 ‘찰카닥’이 무슨 예술이냐는 사회적 비아냥 거림과 사진예술에 대한 신념의 부재 속에서 이리저리 흩어졌다. 게다가 어려운 경제 사정은 1960년대까지 쓸만한 전시 팸플릿이나 작품집의 생산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의 관한 글들은 1980년대 전에는 좀처럼 쓰여지지 않았고, 쓰여졌다 해도 긴 호흡의 글은 거의 전무하거나 출판되지 않았다. 사진가들의 발언은 ‘사진쟁이’라는 사회의 일반 인식 속에서 중요하게 녹취되지 않았다. 그리고 1964년에 생겨난 한국의 사진학과는 양적으로 급팽창했지만 지금껏 ‘한국 사진사’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진사를 위한 개인 연구소가 생겨났지만 자본의 부족으로 수집한 자료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가 1년 전,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자그맣게 설립된 목적은 무엇보다 한국사진사의 기술을 위한 자료체의 조사와 수집 그리고 생산이었다. 조사와 수집은 예상대로 지지부진했다. 한국사진사의 기술에 유용해 보이는 빛바랜 ‘역사’도, 활자화된 ‘신화’도, 픽션도 그리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문헌은 구입과 자료 복사가 용이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보다 섬세하고 정확한 한국사진사 연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체를 물색, 구입, 복사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2009년 설립과 더불어 첫 사업으로 한국 원로 사진가들의 육성을 통해 한국사진사가 겪고 있는 자료체의 부족을 만회하고 보충하고자 했다. 그것이 ‘달빛에 물든 신화’ 일지라도, 그들과의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사진사 기술에 있어서 ‘잃어버린 고리’, ‘잘려나간 조각’을 복원하고자 했다. 본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는 보도사진, 예술사진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광고사진의 제1세대로 활약한 김한용 선생과 3차례에 걸친 영상녹취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진사와 그의 사진 인생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 검토할 수 있었고, 구술 녹취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을 습득할 수 있었다. 2010년 초에는 3회에 걸친 ‘김한용과의 대화’가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의 첫 결실로 발간될 것이며, 아울러 그의 영상 녹취물도 편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하반기에는 이명동, 정범태 선생을 모시고 해방공간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사진계의 흐름을 살펴보는 좌담회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영상 녹취작업으로 진행된 이 좌담회를 통해 좌익 단체였던 조선사진동맹의 주요 멤버들의 일화를 청취할 수 있었고, 1956년 창립된 신선회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접하게 되었

다. 격동기를 겪는 한국사진계의 ‘햇빛에 바랜 역사와 달빛에 물든 신화’의 일부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 좌담회의 녹취록 역시 2010년 상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올해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두 개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사진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근현대 사진교육을 재조명하는 좌담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1910년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교는 사진속성과를 설치하고 학생을 모집했고, 1964년에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에 사진과가 설립됐다. 그리고 서라벌예대 사진과는 1973년 4년제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사진학과로 개편됐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한국 사진의 사회적, 예술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시대와 함께 일어난 전통적 사진교육의 쇠퇴 등을 좌담회, 심포지움을 통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사진공모전이었던 《전조선사진살롱》에 관한 문헌자료의 수집과 자료집의 발간이다. 경성일보가 1934년에서 1943년까지 매년 열었던 공모전을 통해 한국 예술사진의 기원과 제 문제 그리고 예술사진과 지배정책의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연구소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한국사진사 기술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진 이론 및 비평 담론의 근거가 될 자료체를 성실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성과들을 사진 관련 전공자 및 전문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진연구자들의 지평을 확대하고 인접 학문과의 협동 연구의 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최 봉 립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해방공간의 남북한 사진계의 조직(1)

– 좌익계열 사진단체를 중심으로

해방공간은 한국사진사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은 1945년 8월 15일부터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를 일컫는 해방공간은 한반도를 양분한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대리전 속에서 좌우익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던 시기였으며, 사진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등 제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988년 월·남북작가 해금 조치이후 해방공간의 예술가들과 예술작품들을 새로 발굴하거나 재조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상당한 학술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사진 분야에서는 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이며, 그 결과 좌익 사진가들의 활동은 물론이고 월북 및 전향 사진가들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좌익계열인 사진단체인 조선사진동맹의 회원으로서 해방이후 최초로 개인사진전람회를 개최한 임석제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를 중심으로 초보적이고 피상적인 상황만을 살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 사태는 해방공간의 좌익사진가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그들의 활동이 원로사진가들의 고증과 기억에서조차도 크게 각인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던 결과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사진계를 지배해온 보수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사진사(寫眞史) 연구가 주로 보수적 민족주의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다는 점 또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즉 이 시기의 사진사가 주로 우익 계열의 사진단체인 조선사진예술연구회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으며, 좌익계열 사진단체와 사진가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되거나 사진사의 변방으로 방치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날 듯, 사진사도 어떤 편향된 입장이나 사실만으로 기술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진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했던 좌익계 사진가들의 활동을 정리하여 상실된 해방공간의 사진사를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그 기초 작업으로 그동안 찾은 사료를 중심으로 해방공간의 남북한 사진계의 지형도를 개략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1. 남한의 문화예술단체의 조직

1.1 조선문화단체총연맹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5년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 구 카프(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 계열의 핵심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조선문학건설본부는 이를 뒤인 8월 18일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문건으로 약칭)를 결성하고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체육 등 각 부문별 건설본부를 산하 단체로 조직하였다. 1946년 2월 24일 문건은 이와는 별도로 조직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1945년 9월 30일 발족, 조선프로에맹으로 약칭)과 통합하여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으로 약칭)으로 개편되었다. '민주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을 표방한 문련은 예술부문, 과학부문, 언론부문, 교육부문, 체육부문 등 총 25개의 가입 단체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좌익 진영의 상징적 문화기구가 되었으며, 예술부문의 단체로는 조선문학가동맹, 조선연극동맹, 조선영화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조형예술동맹, 조선음악동맹, 국악원, 조선무용협회, 조선가극동맹 등이 여기에 가입했다.^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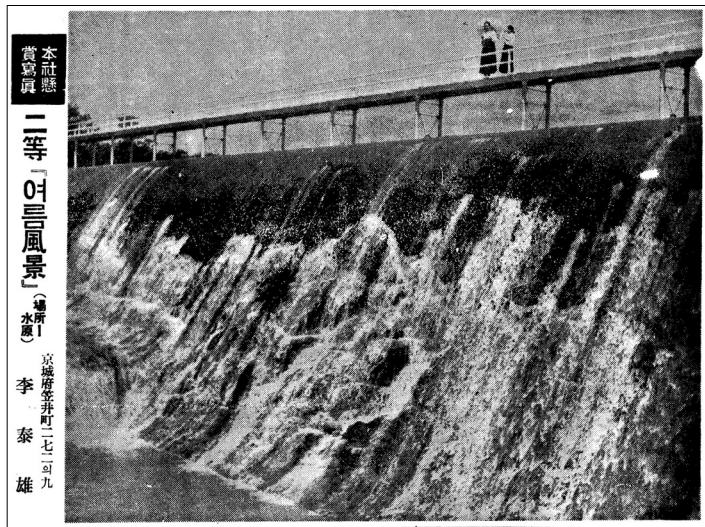
이에 맞서 우익진영에서는 1947년 2월 12일 총 28개의 문화단체가 모여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으로 약칭)가 결성되었으며, 산하의 사진단체로는 조선기록사진문화사, 조선사진예술연구회(조선사연으로 약칭), 조선사진협회 등이 가입되어 있었다.

1.2 조선사진동맹의 창립과 활동

우익진영의 조선사연이 문총의 결성과 함께 창립단체로서 활동했던 것에 비해 좌익진영의 사진단체는 문련의 출범이후 1년 4개월 뒤에나 출현하였다. 즉 1947년 6월 13일 종로기독교청년회관에서 김진수, 이태웅, 이용민 외 20명의 발기로 그동안 준비해온 조선사진동맹(사진동맹으로 약칭)의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조직적인 좌익사진단체로 발족하기에 이른 것이다.^② 이 단체는 '민족문화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진업자, 아마추어사진가, 보도사진관계자 등이 총망라하여 창설된 사진문화기관'이었으며 결성되자마자 문련의 산하단체로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지금까지 사진동맹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나 준비위원장이었던 이태웅이 위원장으로, 발기 위원이었던 김진수가 서기장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 이태웅은 사진동맹 결성에 즈음하여 동년 6월 5일 「사진인의 진로」라는 글을 쓰면서 창립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과거 조선의 사진예술은 체계 없는 이론 속에서 형식적인 추종과 도덕적인 모방에서 자기 만족하였다. 현재 역시 이 근성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그 허위를 합리화 시키려고 탐비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진인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야심적 또는 완고한 일부 분자들로 말미암아 오래인 동안 지연되었던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무자비한 맹격을 가함으로써 그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선 대내적으로 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신문화운동에 대하여 투쟁적 예술성과 대중적 표현성을 가진 사진예술을 창조함이 남조선 사진인에게 부과된 당면임무일 것이다. 여기에 헤게모니적 의무를 잡는 자,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거대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혁명적인 사진인의 집단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발생적 필

①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18-19쪽
② 「사진동맹 금일 결성」, 『문화일보』, 1947.6.13; 「사진동맹 결성」, 『광명일보』, 1947.6.13



1938년 조선일보사 주최 《남량사진현상모집》에서 2등을 받은 이태웅 작 <여름풍경>_ 현재 까지 알려진 이태웅의 사진은 해방 전에 촬영된 것으로는 이 사진이 유일하며, 해방후에는 『국제보도』제3호(1946. 6)에 게재된 <응사>가 남아있다.

연적 의무와 역량을 가지고 나오게 된 조선사진동맹이 비록 시기를 늦게 하고 고고의 성(聲)을 울리게 되었으나, 그 정열의 플래카드가 푸른 하늘에 날리게 된 기쁨과 용기를 나는 동지들과 함께 축복하고 싶다.(강조는 필자)^④

여기서 이태웅이 비판한 ‘형식적인 추종과 도적적인 모방에서 자기만족’만을 해온 ‘완고한 일부 분자들’은 조선사연을 지칭하며, 그들에 의해 지체된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양심적이고 혁명적인 사진인의 집단을 요구했다. 따라서 사진동맹에게 부여된 임무는 투쟁적 예술성과 대중적 표현성을 가진 사진예술의 창조였다. 하지만 이태웅의 말마따나 결성이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반성과 비판이 필요하다. 해방이후 문건, 문련, 조선프로예맹과 같은 문화기구가 결성될 때 단체조차 조직하지 못하고, 문학이나 미술, 영화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적 실천과 문화운동이 미미했던 것은 인텔리겐치아 집단이 사진계에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진이 비공인예술로 인식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사진가의 사회적 지위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사진동맹의 경우도 자발적이거나 주체적인 입장에서보다는 외부로부터 요구된 결과였다. 즉 대중문화운동 차원에서 사진을 선전선동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한 문련의 필요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은 사진동맹이 다른 분야보다 뒤늦게 출범한 이유이기도 했다.

사진동맹은 결성된 지 4일 만인 6월 17일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서울지부를 6월 안에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지방조직도 가급적 속히 착수하고 부산과 인천 그리고 수원지부도 그달 안에 결성하기로 했으며, 7월 15일까지 동인지 『영화사진』을 출판하고 8월 중순 동화회관에서 《8·15기념 제1회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각 지역의 사진동맹 지부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관지의 출판과 전람회의 개최 등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의욕적인 행보를 내디뎠다. 하지만 사진동맹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보다는 문련과 보조를 맞추면서 일련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사진운동을 전개시켜 나갔다.

③ 이태웅, 「사진인의 진로, 사진동맹 결성에 제(際)하야」, 『문화일보』, 1947.6.14

1947년 5월 21일 개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로 약칭)는 6월 11일 미국과 소련의 공동성명으로 제11호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공위에 참여할 민주당과 사회부체를 명시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찬성한다는 선언서에 서명하고 참가청원서를 제출한 정당·사회단체들은 미소공위의 남조선정당사회단체와의 합동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미소공위 공동성명서 제5호와 제6호에 의해 임시정부 헌장 및 정책에 관한 자문안에 대해 답신안을 제출했다^⑤ 문련에서는 6월 18일 산하 30여 단체의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미소공위 참가와, 자문안 내용의 검토, 참가 대표 선출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토의 결과 공위 참가를 정식으로 결정하고, 산하 각 단체로 하여금 중앙확대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토의하여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진동맹에서는 6월 21일 중앙확대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동회의에 참석할 미소공위 대표로 서기장 김진수를 선정했으며, 토의를 거쳐 미소공위 자문 답신안에 대한 민전(民戰) 5원칙을 절대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민전 5원칙이란 1946년 2월 조선공산당의 주도 하에 남한의 29개 좌익단체가 결성한 좌익세력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7월 25일 발표한 좌우합작원칙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지지, 친일파 배제, 토지개혁, 인민 위원회로의 정권 이양, 입법기관 창설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25일에 열린 미소공위의 합동회의에 사진동맹 대표로 참가한 김진수는 당시 감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장 위대하고 승엄한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착취와 억압 속에서 살아온 삼천만 인민에게 자유와 평화와 독립의 문은 열린 것이다. 브라운 소장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속행만이 있을 뿐이라고 약속하였다. 슈티코프 대장^⑥은 나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염려마시오, 꼭 인민을 위한 인민의 나라를 수립하기에 서로 힘 있게 나갑시다.”하는 듯하였다. 이 감격과 신념의 악수는 반듯이 삼천만 인민이 갈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봉화(烽火)를 들 것이다.

1947년 6월 문련은 제1차 미소공위^⑦의 결렬 이후 미군정의 좌파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제2차 미소공위의 성사가 조선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실천으로 문화공작대의 지방 파견을 계획하였다. ‘인민을 위한 문화, 문화를 인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문련 산하 단체의 문화예술인들을 총동원하여 조직된 문화공작대는 총 4대로 편성하여 제1차로 경상남도(제1대), 충남북 및 경북(제2대), 경기 및 강원(제3대), 전남북(제4대)으로 각각 파견기로 결정하였다.^⑧ 그러나 실제로는 애초의 계획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제1대는 6월 30일 경남으로, 제2대는 7월 21일 충남북으로, 제3대는 7월 15일 강원도로, 제4대는 7월 21일 경북으로 파견되었다.

연극동맹원 31인, 무용예술협회원 3인, 음악동맹원 3인, 문학가동맹 2인, 미술동맹과 사진동맹에서 각 1인 그리고 공작대장을 포함하여 총 42인으로 구성된 제1대는 6월 30일 서울역을 떠나 목적인 경남에서 《종합예술제》를 비롯한 이등미술전, 사진전, 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였다.^⑨ 제1대에 동행한 조선미술동맹의 최재덕과 조선사진동

④ 『한국사 18, 분단구조의 정착 2』, 한길사, 1994, 55쪽

⑤ 소련측 대표 슈티코프(T. F. Shtikov) 대장을 말함

⑥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수립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점령군사령관들에 의해 설치된 공동위원회.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제1차 본회담 개최 후 성과없이 5월 6일 휴회하였다.

⑦ 「대중의 문화적 욕구에 수응코 문화공작대대거 출동」, 『문화일보』, 1947.6.28

⑧ 오정환, 「문화공작단 경남대 제1신, 굿주린 인민들과 대면」, 『문화일보』, 1947.7.10

맹의 임석순(林奭淳)⁹은 양 동맹에서 공동으로 출품한 회화 및 사진작품을 가지고 부산조선신문사 2층에서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미소공위의 뉴스사진과 남산 메이데이의 기록사진 그리고 좌익 진영 지도자들의 사진 등 사진동맹원들이 촬영한 50여점이 전시되었다. 전시회를 관람한 인민들은 그동안 '50만 동원, 50만 동원' 하고 말로만 들던 서울시민대회의 열기를 사진동맹원들이 촬영한 사실적 광경을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용기백배해져 문련의 위력을 믿으며 감탄해했다.¹⁰ 이 회화·사진 전람회는 문화공작대의 공연지마다 옮겨가며 순회 전시되었다.



1946년 자유신문사 주최 《해방기념사진》에서 추천 1석을 받은 김진수 작 〈전위대〉

제2대에 앞서 7월 15일 강원도지방으로 출발한 문화공작대 제3대에도 사진동맹의 김진해(金鎭海)가 미술동맹의 윤자선과 함께 동행했는데¹¹,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제1대와 마찬가지로 이동전람회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대와 제4대에도 사진동맹원이 동행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7월 21일 서일성을 대장으로 한 제2대가 대전에 도착하는 날에 맞춰 미술동맹과 사진동맹에서 이동전람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날 공교롭게도 대전 시민들이 문화공작대원들을 환영 행렬하는 틈을 타 우익진영의 테러단들이 전람회장을 습격하여 그림을 면도칼로 찌고 몽둥이로 액자를 부수는 피습사건이 일어났다.¹² 정확한 사진작품의 피해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문화공작단이 파견된 지역마다 크고 작은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공연이 중지되거나 전람회장이 습격 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 문련에서는 '문화의 적은 곧 민족의 적이라' 하여 예술사업에 대한 유래 없는 테러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경찰당국에 범인 검거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수수방관했다.

1947년 5월 재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내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되자, 미군정의 좌익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활동이 진행되었다. 8월 15일 해방일을 앞두고 전국적인 좌익검거령을 실시한 미군정은 8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중앙위원회 사무소를 폐쇄하고 조선문학가동맹도 폐쇄했다. 이때 대다수의 좌익계 인사들은 검거를 피해 지하로 잠적하거나 월북하였으며 사진동맹 맹원들도 활동을 중지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진동맹에서는 《해방 2주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하고자 기일과 장소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으나 미 군정청에서 이를 불허하고 아무 데서도 장소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¹³

이후 사진동맹의 이름이 확인된 것은 1948년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의 지지성명에서였다. 1948년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는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던 5·10총선거(남한단독선거)로 분단이 현실화되자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남한단독선거 저지와 민족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회담으로, 김구와 김규식을 포함한 41개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여기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서 문련 서울시연맹에서는 4월 2일 산하단체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는 양심적인 애국문화인들과 광범히 손을 잡고 통일 집결된 거대한 역량으로서 양군의 즉시철폐를 실현시켜 남북통일 자주정부와 전국적인 일반 직접 평등 비밀투표에 의한 자주적 총선거를 전취할 것을 다시금 인민 앞에 맹서하는 바이다. 이제 북조선이 제안해 온 남북애국정당대표자연석회의는 현 위국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절대 지지하는 바이다.'라는 결의문을 냈으며, 여기에 지지 서명한 문련 산하단체 명단에 사진동맹의 이름이 올랐던 것이다.¹⁴ 아마도 이 일이 사진동맹이 단체 차원에서 행한 마지막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사진동맹의 임석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을 8일 앞두고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서울타임스사의 후원으로 《제1회 임석제 예술사진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현일영의 말마따나 '극심한 사진재료난을 극복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개최한 개인전'이라는 영예를 임석제에게 안겨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람회는 조선사진동맹 최후의 만찬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시 프로그램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임석제의 전시 사진 목록뿐만 아니라 사진동맹 위원장인 이태웅의 추천사와 함께 사진동맹원들의 찬조출품 목록도 함께 수록되어있다. 총 15명이 찬조 출품한 16점 중에는 임인식과 허종배와 같은 일부 비맹원들의 것들도 들어있지만 염병택, 이태웅, 김진수, 김주성, 권용직, 조동창, 박상현, 김현덕, 박기성 등 대대수가 임석제와 함께해온 사진동맹 회원들의 작품들이었다. 1947년 8월 본격적으로 실시된 좌익검거령과 미군정의 방해로 그동안 계획했던 《8·15기념 제1회 사진전》이 무산되고 1년 넘게 활동을 중지해야만 했던 사진동맹은 남한정부수립 이후에는 더 이상 좌익사진단체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임석제의 개인전 형식을 빌려 최초이자 최후의 사진동맹 단체전을 연 것이었다. 이 전시는 정부수립 바로 직전인 8월 14일 문을 내렸다.

1949년 6월 5일 좌파 전향자로 구성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자 사진동맹 회원들은 대부분 월북하거나 생존을 위해 (위장)전향을 했으며, 검거를 피해 산이나 외지로 숨어들었다. 이 와중에 1949년 12월 26일 공보처에서는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1월 17일까지 변경계를 제출하지 않은 29개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였는데, 이 명단에 조선사진동맹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1947년 6월 13일 결성되어 문련 산하 단체로 활동해온 조선사진동맹은 1949년 12월 단체명부에서도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다.

이 경 민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9 임석제(林奭濟)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10 오장환, 「문화공작단 경남대 제1(信)하, 굿주린 인민들과 대면」, 『문화일보』, 1947.7.12
 11 「인민을 찾아가는 문화, 15일 공작단 제3대 진발(進發), 이번에는 남(南) 강원도 일대에」, 『문화일보』, 1947.7.11
 12 오장환, 「남조선의 문화예술」,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 648쪽
 13 오장환, 앞의 책, 659쪽

14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서울시연맹, 남북협상지지」, 『경향신문』, 1948.4.4

참고자료: 해방공간 발행 신문자료(문화일보, 중외일보, 광명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한일보, 예술통신, 경향신문 등), 한국사협시(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01), 광복60년 사진60년(민족사진가협회, 눈빛, 2005), 사진문화(사진문화사, 1958, 9-12 호), 내가 걸어온 한국사단(임응식, 눈빛, 1999), 한국현대미술사-사진편(최인진-육명진, 국립현대미술관, 1978), 66년판 한국사진연감(한국사진문화사, 1966), 한국사26(강만길 외, 한길사, 1995) (연표 내용 중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표시로 대신했다.)

| | 1945 | 1946 | 1947 |
|----------------|--|---|--|
| 전시 - 공모전 | 11월 해방독립경축사진전(경기중학교 주최, 학교 강당) - 건국사진공모전(대구건국준비위원회 주최), 홍사영, 안월산, 구왕삼, 이운수 등 입상 | 3월 건국기록사진전람회(조선사진기록문화사 주최, 화신백화점 화랑) 5월 해방기념 사진공모전(자유신문사 주최), 김진수, 이동호, 이명동, 홍용장, 정도선 등 입상 - 제1회 예술사진전람회(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동화백화점) 8월 8.15기념사진전(부산광화회 주최, 부산미국공보원) 11월 제2회 예술사진전람회(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 동화백화점) 12월 해방기념 전남예술사진공모전(광주사연예회 주최, 중앙국민학교 강당, 특선: 이경모 - *대구사우회 제1회 작품전(대구공회당) | 7월 이동미술전람회(문련 문화공작대, 부산 조선신문사 2층)에 조선사진동맹 사진 작품 - 제1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조선사연 주최, 동화백화점), 고종일, 이동호, 안성호 등 입상 12월 제3회 회원작품전람회(조선사연 주최, 동화백화점) |
| 단체 | 9월 경북사진문화연맹(산하에 대구사연회, 대구사광회, 대구사우회 등의 단체가 가입) | 3월 조선사진예술연구회(조선사연) 창립 5월 인천 재물포사진동지회(회장: 정영복) 8월 부산광화회 창립전, 부산 미국문화원 10월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창립(회장: 현일영) - 대구사우회 창립(최계복 중심) * 조선신문사진협회 결성 * 광주사연예회 창립(회장: 윤관혁) * 부산광화회 창립(회장: 임응식) | 2월 문충 산하단체에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조선신문사진협회, 조선기록사진문화사 등의 사진단체 가입 5월 부산예술사진연구회 결성 6월 조선사진동맹 결성(이태용, 김진수, 이용민 외 20인 발기) |
| 출판 | 8월 국제보도연맹 창립 11월 『국제보도』 창간(국제보도연맹 발행, 발행인 : 송정훈) | 3월 『사진통신』 창간(조선사진통신사 발행) - 중앙사진문화사 설립 | |
| 교육 - 행사 | | 4월 서울사진업조합 결성 10월 광주사연예회 창립기념 백양사 촬영대회(광주사연예회 주최) 12월 입법의원 개원식에서 사진취재 제한조치 | 3월 조선사진자료대책 위원회 조직 5월 고적명승사진촬영대회(조선여행사 주최, 조선사연 후원) - 사진재료난으로 정부에 진정서 제출(조선사진재료대책위원회) |
| 한국사 | 8월 일본항복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종결, 광복 9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발족 맥아더, 북위 38선 경계로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발표 11월 조선인민당 결성 - 조선일보 복간 12월 동아일보 복간 - 모스크바 삼상회의 | 2월 비상국민회의 결성 -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 결성 - 좌익세력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 3월 우익의 대한독립운동총연맹 결성 - 조선신문협회 발족 5월 군정장관 허가없이 38선 월경금지 6월 경향신문 창간 - 이승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계획 발표 7월 북한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 북조선노동당 결성 12월 조선중앙일보 창간 | 2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 결성 5월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결성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 6월 조선신문기자협회 발족 9월 제1회 예술제전 개최(문화단체총연합회) 11월 UN총회 한국총선안, UN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 정부수립 후 양군철폐안 가결 |

| | 1948 | 1949 | 1950 |
|--|---|---|--|
| | 1월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제1회 회원전 2월 조선문화사진전람회(국제보도연맹 주최, 덕수궁 UN총회 회의실) 5월 허승균 윤남 이승만 박사 사진보도 개인전(화신백화점 화랑) 8월 임석제 제1회 개인전(동화백화점) 10월 예술사진동인회(김정래, 김광배, 이해선, 임응식, 박필호, 최계복, 박영진, 현일영) 11월 제1회 향토문화사진전(국제보도, 미공보원 주최, 미국문화연구소 갤러리, 안월산, 임문제, 최창희, 임인식, 조명원, 문홍조 등 입상 - 여운사진보도사진전(문총 주최, 화신 백화점 화랑) 12월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제2회 회원전 - 제2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조선사연 주최, 동화백화점 화랑) | 4월 제1회 보도사진전(한국신문기자협회 주최) 제1회 전국어린이사진공모전(서울인상사진연구회), 임운장, 고종일 등 입선 6월 이효점 사진전(대원화랑) 7월 김광배 사진전(미국공보원 화랑) - 전국종합사진전(서울사진재료상조합, 조선사진문화사 공동주최), 총 5부로 구성, 400여점 응모 8월 제1회 전국종합사진전람회(서울사진재료상조합, 사진문화 주최) - 독립1주년기념 기록사진전(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동화백화점 화랑) - 육군사진전람회(육군본부 정훈감실 보도과 주최, 미국문화연구소) 10월 대외선전관광사진 현상모집(외무부 정보국 문화과주최) 11월 제2회 향토문화사진전(국제보도 주최, 미공보원 문화연구소), 특선: 정인성, 특선 2차: 김성수, 준특선: 이경모, 안월산, 최창희, 김원영, - 예술사진동인전(예술사진동인회 주최, 대원화랑) 12월 제3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대한사연 주최, 동화백화점) | 4월 군민친선사진현상모집 및 전시회(국방부 정훈국 보도과 주최, 미공보원 문화부) 5월 세계어린이사진전람회(개벽사 주최) - 어린이 사진전(서울 인상 사진연구회 주최) 6월 제2회 전국종합사진현상모집 공고(서울사진재료상조합)-한국전쟁으로 무산 10월 임응식 경인전선보도사진전(부산광복동, 미문화원 전시실) - 전승사진보도가두전시회(공보처 주최) 11월 전쟁기록사진전 |
| | 11월 경북인상사진연구회 조직 | 1월 인천 은영회 결성(회장: 이경성) 8월 인천예술가협회 창립(사진분과장: 정용복) 9월 조광사진구락부 창립 - *조선사진예술연구회가 대한사진예술연구회(대한사연)로 개칭 | |
| | 1월 『부산사진타임스』 창간(발행인: 박삼봉) 2월 『서울그래프』 발행(조선사진문화사) 7월 『사진문화』 창간(발행인: 이규환, 편집인: 신오성, 주간: 이동호), 1950년 6월 25일 제12호를 끝으로 종간 | 『Pictorial Korea』(한국화보) 발행(국제보도연맹), 1949-1962 | |
| | 6월 사진문화사 주최 창경궁사진촬영경기대회 10월 사진문화사 주최 세검정주계촬영대회 11월 사진특별행위세 철폐 진정서 제출(전국사진단체연합회) | 5월 신록촬영대회(사진문화, 평화일보사 공동주최, 창경궁 비원) 10월 사진특별행위세 철폐 11월 YMCA 사진학교 부활 | 3월 YMCA 사진학교 주최 제1회 사진단기강좌 개최 |
| | 2월 UN총회 남한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 김구 남한단독정부 수립반대 성명 - 평화일보 창간 5월 UN하위 감시하에 남한만의 첫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5.10단독선거) - 국회 개원(의장 이승만),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원내 선거로 초대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 선출 8월 하지 중장 미군정 폐지 발표,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한미상호방위협정 체결 9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개최(수상: 김일성) 11월 국가보안법 통과 12월 UN총회, 한국정부 승인 | 1월 반민특위 발족 2월 여순반란사건 60명 체포 3월 제1회 서울시예술상 시상 6월 김구 암살 11월 제1회 국전 | 6월 2대 국회 개원 - 한국전쟁 발발 9월 UN군 인천 상륙 - 서울수복 10월 국군 평양 탈환 - 중국군 한국전 개입 11월 더 코리아 타임스 창간 12월 대한신문기자협회 결성 |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참고자료

| 김한용의 글 | | |
|--|--|--|
| 김한용, 「상업사진과 인쇄, 『인쇄계』(17호), 1972.5 |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3), 『조선일보』, 1953.10.26 | 신세미, 「50-60년대 민중모습 생생히, 『문화일보』, 2002.11.23 |
| 김한용, 「다시 가고 싶은 촬영지-한라산, 『영상』, 1979.8 |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4), 『조선일보』, 1953.10.27 | 정재연, 「'신선회' 김한용씨 등 원로들 '리얼리즘' 사진展」, 『조선일보』, 2002.11.23 |
| 김한용, 「예술세계에 자만 없다, 『예술계』(통권 1호), 1984.가을 | 「조일광고상 시상, 『조선일보』, 1966.12.8 | 허문명, 「사진작가 김한용의 테마- '석상/보물문양」, 『동아일보』, 2003.3.18 |
| 김한용, 「(특집)예술의 책임 한계: 사진 김한용 -매력적인 영혼에의 분신, 『예술계』(통권 6호), 1985.11 | 「조일광고상에 금성 FM라디오, 제4회 수상자 결정, 『조선일보』, 1967.11.11 | 허문명, 「사진작가 김한용의 테마- '석상/보물문양」, 『동아일보』, 2003.3.18 |
| 김한용, 「광범위해진 표현의 가능성, 『예술계』(통권 10호), 1986.3 | 「높아진 인식, 세련된 질, 제4회 조일광고상 심사평, 『조선일보』, 1967.11.21 | 「광고사진 작가 김한용展」, 『조선일보』, 2003.3.26 |
| 김한용, 「한국의 참된 인간미를, 『예술계』(통권 11호), 1986.4 | 「개성 있는 구도를, 5회 조일광고상을 뽑고 나서, 『조선일보』, 1968.11.17 | 신세미, 「패션-사진-미술관이 만났다, 『문화일보』, 2003.8.11 |
| 김한용, 「예술시평-사진: 생동감 있는 전쟁의 공포, 『예술계』(통권 12호), 1986.5 | 「조일광고상 시상, 어제 신문회관서, 『조선일보』, 1968.12.3 | 김광일, 「같은 길-원로작가 김한용·홍익대 김대수 교수 부자, 『조선일보』, 2004.2.2 |
| 김한용, 「새로 마련된 영상사랑, 『예술계』(통권 13호), 1986.6 | 「세련된 시각화, 제6회 조일광고상 심사를 마치고, 『조선일보』, 1969.11.18 | 김동섭, 「99년전 '독도 수호신' 은 심흥택 울릉군수, 『조선일보』, 2005.3.9 |
| 김한용, 「피서를 모르던 시절의 쉼터, 『력키 금성』(통권 120호) | 「조일광고상 시상, 본사 주최 어제 신문회관서, 『조선일보』, 1969.12.2 | 「52년 전 '다케시마 말뚝' 뽑고 '독도' 표식 세우다, 『조선일보』, 2005.3.9 |
| 김한용, 「격세지감의 광고사진, 『LG AD』(통권 58호), 1990.4 | 이명동, 「1회 상업사진전 평, 『동아일보』, 1972.3.30 | 정재연, 「광복 60주년 기념 '시대와 사람들' 사진전, 『조선일보』, 2005.4.12 |
| 김한용, 「광고전문인의 세계(vi) 한국 광고사진계의 초창기와 오늘, 『다이아몬드애드』(통권 54호), 1992.1 | 「상업사진가협회서 신문회관서 회원전, 『매일경제신문』, 1972.3.30 | 허문명, 「렌즈로 본 한국 현대사 '시대와 사람들展' 내달 8일까지, 『동아일보』, 2005.4.20 |
| 김한용, 「광고사진역사 30여 년, 그 눈부신 발전, 『광고사진』(Vol.2),1992.3 | 「최우수 광고주상 3개 선정, 조일광고상 대상 해당작 없어, 『조선일보』, 1976.10.20 | 윤민용, 「서울 국제사진페스티벌 '사진과 미술의 포용', 『경향신문』, 2006.9.12 |
| 김한용, 「일선에서 말한다-광고사진가, 외길 인생 45년, 『광고계 동향』(통권 19호), 1992.9 | 「수작 없는 평준화 신인 활기, 제13회 조일광고상 심사를 마치고, 『조선일보』, 1976.10.22 | 「충무로의 사진가들' 전시회 18일부터, 『조선일보』, 2006.9.14 |
| 김한용, 「가난했던 시절, OB맥주광고, 『광고사진』(Vol.17), 1996.5.15 | 「김한용씨에게 들어보는 가을철 사진찍기, 『매일경제신문』, 1981.10.13 | 노형석, 「야심만만 큐레이터의 기획을 보라- '이상한 나침반' 전과 '이미지 충돌' 전, 『한겨레』, 2007.8.30 |
| 김한용, 「평생을 카메라와 함께, 김한용, 『한국인』(Vol.16 No.6), 1997 | 「사진작가 김한용씨 22일 미국 사진계 시찰, 『경향신문』, 1982.7.16 | 이찬호, 「동강사진박물관 해방 이후 기록사진 등 40점 올 첫 전시, 『중앙일보』, 2009.1.14 |
| 김한용, 「광고인 수필-광고업계 IMF 시대 극복방안 및 다짐, 『광고계 동향』(통권 84호), 1998.2 | 「제11회 광고인 대상 수상자-김한용, 『매일경제신문』, 1984.5.10 | 오석기, 「원로사진작가 김한용씨 개인전, 『강원일보』, 2009.1.15 |
| 김한용, 「사진가 김한용의 사진 인생 50년-광고사진의 개척자 김한용, 『월간조선』, 2002.2 | 「김한용 사진작품전, 『경향신문』, 1985.1.18 | 주간지 |
| 일간지 | 「김한용씨 사진작품집 출판기념회, 『동아일보』, 1985.1.18 | 신을진, 「한국 누드사진 흐름전, 『주간동아』, 2001.5.10 |
| 「독도답사에 성공, 산악회 학술조사단 18일 귀경, 『조선일보』, 1953.10.19 | 「한국사진110 작가열전-김한용, 한용수, 『문화일보』, 1998.4.23 | 이정훈, 「1953년 독도에서 '다케시마' 를 뿌리뽑다, 『주간동아』, 2005.3.15 |
|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1), 『조선일보』, 1953.10.22 | 고강훈, 「한국 누드 변천사 한눈에, 『한국일보』, 2001.4.25 | 이동훈, 「1953년 독도 사진으로 화제 김한용 사진작가, 『주간동아』, 2005.3.22 |
|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2), 『조선일보』, 1953.10.23 | 진동선, 「알몸의 참된 의미를 아는가, 『한겨레』, 2001.5.8 | 이정훈, 「독도에 흥순칠 동상 세워지나, 『주간동아』, 2005.10.25 |
| | 박광희, 「50, 60년대 그 시절 우리 모습, 『한국일보』, 2002.11.19 | 「향토문화사진전, 『국제보도16』(vol.3, no.5), 1948.12.20 |

김한용 편

자료목록 소개 :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원로 사진가 김한용 선생과의 구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2009년 6월 16일, 7월 8일, 7월 17일 등 총 3회에 걸쳐 개인사, 보도사진, 광고사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 김한용 선생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 목록을 싣는다.

| 월간지 | 편집부, 「퇴세겨보는 6.25, 김한용, 『월간사진』(통권 371호), 1998.6 | 「희망의 연대기: 카메라로 바라본 1950-1960년대, 눈빛, 2006 |
|--|---|---|
| 편집부, 「상업사진작가 탐방기: 김한용, 『포토그래피』(통권 48호), 1971.6 |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2), 1998.7 | 『Elastic Taboos(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 Kunst Halle Wien, 2007 |
| 이명동, 「1회 상업사진전, 『신동아』, 1972.5 |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3), 1999.1 | 『한국현대사진 60년』, 국립현대미술관, 2008 |
| 이만재·이명동, 「자연을 결합하는 극기, 김한용 사진, 『디자인』(9호), 1978.1 |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4), 1999.4 | 단행본 |
| 임법택, 「한국의 그래픽 디자인과 광고사진 上,中,下, 『영상』, 1978.11-1979.1 |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5), 1999.7 | 「김한용 사진연구소, 『한국광고사진연감』, 안국문화, 1991 |
| 이명동, 「광고사진가는 빼앗긴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영상』(5권 9호), 1979.9 |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6), 1999.12 | 신인섭, 『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 |
| 최인진, 「한국의 사진가 10-상업사진의 시대를 연 김한용의 사진세계, 『영상』(9권 10호), 1980.1 | 박명옥, 「사진과 사람 7. 충무로의 영원한 지킴이 김한용, 『한국사진』(통권 230호), 1999.9 | 박평중, 『한국사진의 선구자들』, 눈빛, 2007 |
| 편집부, 「100호를 내기까지 영상을 빛낸 사람들 1 : 임응식, 이경모, 정범태, 김한용, 『영상』 (19권 2호), 1984.2 | 육명식, 「한국의 사진가 2- 육명식이 만난 한국의 사진가 광고사진가 김한용, 『사진예술』, 2002.2 | 학술지·학위논문 |
| 편집부, 「투신 30년-김한용, 『주간매경』 (통권 250호), 1984.6 | 편집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성-김한용, 이서, 한금현, 『포토넷』(통권 101호), 2007.1 | 유경선, 『광고사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3 |
| 한정식(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측면사9-김한용 선생께 듣는다, 『월간사진』 (통권 220호), 1985.11 | 김동욱, 「People Now-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세월을 이겨냅니다, 『광고정보』(통권 312호), 2007.3 | 최윤정, 「누드사진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한 고찰-한국누드사진을 중심으로」, 경성대 산업디자인학과, 2001 |
| 한정식(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측면사10-김한용 선생께 듣는다, 『월간사진』 (통권 221호), 1985.12 | 진현옥, 「광고사진 1세대 김한용, 홍익대 사진교수 김대수 부자, 『사진예술』, 2008.4 | 최인진, 「해방 초기의 사진잡지 연구, 『AURA 10』, 2003 |
| 편집부, 「이달의 만남-상업사진의 선구자 김한용 원로와의 대화, 『영상』 (21권 3호), 1985.3 | 이정훈, 「1953년 독도를 최초로 측량한 박병주 선생, 『신동아』(통권 592호), 2009.1. | 안수영,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사진 잡지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2005 |
| 편집부, 「김한용 사진집 출판기념전시 작품 중에서, 『영상』 (21권 3호), 1985.3 | 조경국, 「Culture-사진가의 책가도, 『포토넷』(통권 125호), 2009.10 | |
| 한정식(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측면사11-김한용 선생께 듣는다, 『월간 사진』 (통권 223호), 1986.2 | 작품집, 도록 | |
| 편집부, 「예술가의 공간-사진작가 김한용, 『실내장식』, 1988.7 | 「김한용 작품집, 월간사진출판소, 1984 | |
| 김한용·이경모, 「사진계 원로대담-영상의광장 응모자에게 바란다, 『영상』 (29권 1호), 1989.1 | 『얼, 호영, 1993 | |
| 홍순태, 「광고전문인의 세계(vi) 포토그래퍼 한국 광고 사진의 현황과 예술성, 『다이아몬드애드』 (통권 54호), 1992.1 | 『일상, 기억, 역사: 광고사진-김한용, 광주비엔날레, 1997 | |
| 이만재, 「한국 광고 인물사7- 기와 혼의 한평생 광고사진가 김한용, 『광고정보』 (통권 162호), 1994.9 | 『석굴암, 김한용 사진집』, 눈빛, 1999 | |
| 박암중, 「프로정신으로 50년을 달려온 사진작가 김한용, 『디자인』, 1997.1 | 『한국사진과 리얼리즘: 1950-60년대의 사진가들』, 눈빛, 2002 | |
|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잊혀져 가는 추억의 시간으로, 김한용, 『광고사진』(Vol.21), 1998.3 | 「김한용 작품집, 눈빛, 2003 | |
| | 『Fast Forward』, Kogaf & Fotografie forum international, 2005 | |